

1990年度

# 郷土史料集

( 횡 성 의 역 사 )

第 8 號

目 次

○ 浴 革

- |           |    |      |
|-----------|----|------|
| 1 . 上古時代の | 横城 | / 1  |
| 2 . 三國時代の | 横城 | / 4  |
| 3 . 高麗時代の | 横城 | / 6  |
| 4 . 朝鮮時代の | 横城 | / 8  |
| 5 . 日帝時代の | 横城 | / 13 |
| 6 . 해방이후의 | 横城 | / 14 |

横 城 文 化 院



## 沿 革

횡성군은 우리나라 中部內陸인 江原道 嶺西地方에 位置한 陸路交通의 中心地로 郡民性이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며 東·西의 文化를 摻合하여 독특한 文化圈을 형성해 온 곳으로서 이 고을 주민들은 日帝의 침략에 도내에서 가장 거세게 항거하였고, 극심했던 6.25 동란의 참화(慘禍)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국 최우수 都邑을 가꾸는 등 풍요한 새 횡성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횡성군의 연혁은 時代的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上古時代의 橫城

먼저 우리나라의 原始文化를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北方계열과 南方계열로 나누게 되는데 이는 舊石器時代를 지나 新石器時代에서 文化를 구분하게 된다.

즉, 북방계열은 예맥족(濊貊族)의 文化로, 남방계열은 한족(韓族), 다시 말해 三韓의 文化를 말한다.

여기에서 과연 횡성의 文化가 어느 계열에 속해서 형성되었는가를 규명짓기는 모호한 점이 많겠으나 「橫城과 三·一運動」(趙東杰·1972年 8月 15日·횡성군 3·1운동 기념비 건립협찬위원회)의 기록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예맥족 또한 한족이란 구분은 좁은 의미의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볼때, 이를 합쳐 우리의 先史民族을 예맥족이라 부르고

오늘날에는 한(韓)족이라 부르고 있으니 모두 우리 민족의 지칭인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原始時代를 예맥족이라고 구분하였다.

예맥이란 이름은 원래 맥(貊)에서 비롯되었고 그 기록은 중국의 문헌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때 우리 민족의 영역은 중국 東北方과 滿洲에서 한반도까지로 마치 예맥이 강원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남·북방계열로 나눌때, 강원도의 경우 嶺西地方은 春川 以北은 북방으로, 嶺東地方은 江陵 以北을 북방으로 구분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春川은 「맥국의 옛땅」 江陵을 「예국의 옛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江陵과 다르게 三은 남방계열의 三韓중 하나인 辰韓의 실직국(悉直國)에 속해 있지만, 영서지방의 경우에는 分明하게 區分하기에 무리가 있다. 春川도 북방계열에 속한다 해도 문화교류로 인해 남방적 색채가 遺物에서 나타나고 있고, 洪川의 경우에도 북방계열로 한계를 짓기에는 성격상 매우 어려우나, 그러나 璜성은 原州와 더불어 남방계열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위의 책에서는 세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璜성이 원주지방과 함께 섬강(蟾江)을 통해 京畿道地方과 연결된 地形上의 이유이다. 원시시대에는 강물을 따라 사람들이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璜성에서 발원하는 섬강은 忠淸道와

京畿道 남부지방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上流인 만치 이강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방의 原始部族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 남부와 충청도지방에 부족을 이루었던 馬韓의 계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유는 황성에는 北方系 유적인 卓子型 고인들이 없는 반면 全羅·忠淸·경상도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남방계의 기반형(蕃盤型) 고인들이 발견된다는 점으로 이같은 고인들은 국립박물관이 펴낸 「한국의 지석묘 연구」에 군내의 甲川面에서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다.

셋째 이유는 황성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甲川과 泰岐山이 가지고 있는 전설로서 辰韓의 마지막 王인 泰岐가 신라의 朴赫居世와 전쟁이 일어나 패한뒤 태기왕이 이곳에까지 쫓겨와 싸웠다는 전설로 이 산에는 태기가 쌓았다는 泰岐山城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진한을 정벌한 박혁거세가 갑옷을 씻었다고 해서 甲川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모두 三韓과 관계된 전설이다.

그러나 이 산이 平昌郡과 경계를 하는 까닭에 平昌地方에는 이와 다른 전설 즉, 진한의 왕대신 예맥의 왕자로 변신해 있다. (平昌郡誌 p 51, 457, 平昌郡 발간), 하지만 태기왕과 박혁거세의 전설이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泰岐山·泰岐山城·甲川·踏山으로 연결되는 전설을 분리할 수 없을때, 이 전설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3년 4월~6월 사이에 屯內面 屯坊內里에서 발

견된 初期 鐵器時代의 유적群은 이곳이 위도상 橫城邑 보다 높고 산간 高地帶임에도 이 지역까지 酒泉江을 따라 이미 A. D 1 ~ 2 세기에 南方系의 文化가 남한강의 上流로 거슬러 올라와 철기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屯內: <屯內 유적발 보고서> 1984. 2. 29 江原大學校 博物館).

## 2. 三國時代의 興성

가. 三國時代

위에서 본바와 같이 興성은 上古時代에 마한의 영역에 속해 있다가 3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삼국 중, 먼저 백제의 땅이 되었다가 고구려의 영역이 되고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는 3국간의 영토 확장의 쟁점이 되어 한강을 중심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게 된다.

百濟의 영토가 되었던 때는 빠르면 제 8대 고이왕(古爾王) 때인 A. D 235 ~ 285 년 당시였거나 늦어도 제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인 A. D 346 ~ 374 년 당시 以前이었을 것이다. 그 까닭은 백제가 국가체제를 이룬 것은 고이왕때이니 빠르면 이 당시에 興성까지 영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늦어도 근초고왕때는 백제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로 삼국중 가장 우세하였던 때이며 적어도 강원도 영서지방의 대부분을 백제가 장악했기 때문이다.

백제시대를 지나서 고구려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고구려 제 20대 長壽王 ( A . D 413 ~ 491 ) 때의 일로서 서기 475년 이후가 된다. 이 해에 장수왕은 백제의 위례성 ( 尉禮城 : 지금의 경기도 광주 ) 을 공략하여 백제의 개로왕 ( 蓋鹵王 ) 을 죽이고 백제를 남쪽 熊津 ( 지금의 충청도 公州 ) 으로 쫓아냈던 것이다.

이어 신라의 통치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는 신라 제 24대 眞興王 ( A . D 540 ~ 576 ) 때로 서기 551년경이 된다.

이 무렵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여기서 통일 신라시대까지의 횡성의 지명을 알아보면, 三國史記가 전하는 最古의 지명을 於斯買 ( 어사매 : 오사매 ) 라고 적고 있다.

또한, 화전 ( 花田 ) 혹은 花城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치 않고 다만 別稱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橫城이라는 지금의 地名의 근원이 되는 橫川이란 지명은 고구려시대부터 불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橫川이란 이름은 이곳의 강물이 南-北 즉 세로(縱)로 흐르는 다른 곳과는 달리, 東-西 즉 가로(橫)로 빗겨 흐르기 때문에 가로 횡(橫)자를 썼다고 한다.

나. 統一新羅時代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횡성을 비롯한 도내의 영서지방은 삭주(朔州)라 불렀고 특히 原州만은 北原京이라 하여 5小京 중의 하나로 독립되어 있었다.

9州 중의 하나인 朔州는 북쪽으로 지금의 함경도 安邊에서 강원도 영서지방과 경상북도 榮州에까지 이르는 오늘날의 道와 같은 行政區域으로서 道知事격인 도독(都督) 혹은 총관(總管)이 있었는데 이때 삭주의 도독 소재지는 春川이었다.

당시 제도는 州 밑에 郡을 두고 그 아래 다시 縣을 두었는데, 횡성만은 州의 都督이 직할하는 縣으로 따로 두었고 그 이름을 潢川(潢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끝 무렵인 소위 後三國 때에는 原州에 옮겨하고 있던 梁吉의 세력하에 있다가 다시 梁吉과 싸워 이긴 궁예(弓裔)가 세운 태봉국(泰封國)의 지배를 받게 되며 뒤따라 王建이 세운 고려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 3. 高麗時代의 橫城

고려시대의 횡성의 이름은 다시 전대로 橫川으로 바뀌어 이 시대 끝까지 橫川으로 불렸다.

고려 때는 횡성이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地方行政이 일관적인 질서를 잃고 있어서 기록이 책마다 동일하지

않고 또 하나의 책에서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횡성의 연혁을 밝히는데도 확실한 연대를 명시하여 기술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의 초기·중기·말기로 3 단계로 나누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고려 초기에는 전국을 16 도로 나누어 구획했는데, 이 때에 강원도는 함경도 남부와 더불어 삭방도(朔方道)라 하였으며 횡성은朔方道の 春州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중기에 이르러서는 전국을 5道 兩界로 구획할 때에는 강원도를 세토막으로 나누어 영동지방을 東界로, 영서지방 북부는 交州道(혹은 東州道·春州道)로, 남부는 양광도(楊廣道)로 불렀으며 경기·충청·강원도의 嶺西地方을 통합한 것으로, 이때에 횡성은 처음에는 교주도의 春州에 속해 있다가 양광도에 속한 原州의 관할이 되었다.

그 후, 고려 말기에는 동계에 속해있던 영동지방에 江陵道가 생겨나더니 영서 북부의 交州道와 합쳐 交州江陵道가 되었고 횡성(橫川)은 공양왕(恭讓王) 元年인 1389년에 감무(監務)를 설치 독립하였으며, 양광도에서 교주 강릉도로 이관되어 朝鮮時代를 맞게 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이 고을과 관계가 깊었던 전쟁이 많았으나 이는 생략하고자 한다.

#### 4. 朝鮮時代의 橫城

조선시대의 형성을 기술하기에 앞서, 이때가 地方制度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인만 江原道史와 함께 전개한다.

##### 가. 강원도의 탄생과 변화

江原道란 地名은 朝鮮王祖 太祖 3년인 1394년 음력 6월 23일 역사상 처음 생겨났는데 이것은 고려 말엽 交州江陵道를 강원도로 변경한 것에서 연유한다.

그 후 太宗 13년인 서기 1413년에는 전국을 8道로 구획하였고, 이때부터 世宗에 이르기까지 8도의 行政區域을 새로운 王祖에 맞게 정리한다.

강원도(고려때의 교주강릉도에 해당하는 구역)에 속해있던 永川을 충청도에 할양하고, 加州과 朝宗(지금 加州에 속함)을 떼어 경기도에 할양했다. 그대신 경기도에서 伊川(伊川)·안협(安峽)·철원(鐵原)을 강원도에 편입시킨다.

이 작업이 끝난것은 世宗때이나 原州는 이미 교주강릉도를 강원도로 고칠때(太宗 3년) 강원도에 편성하여 강원도의 監營(監營: 지금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고 그 후 1895년까지 500년동안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太宗 13년 전국을 8도로 나눈 이후 1895년까지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거의 변동이 없이 내려가지만 그 이름은 몇 번씩 변화한다. 그 이유는 江原道라는 이름은 원래 江陵과

原州의 첫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의 제도로는 그 고을(강원도는 강릉·원주, 경상도는 경주·상주등)에서 반역자가 났거나 혹은, 도의에 어긋난 즉, 三綱五倫에 어긋난 사람이 생기면 그 고을을 강등시키는 한편, 道名에서 그 지역의 이름자를 빼고 다른 고을 이름자를 쓰게되어 있어 도내에서도 春川·襄陽등의 머릿글자를 넣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적 범죄나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고을에 대한 처벌로서 그 처벌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10년이 경과하면 원래의 이름으로 복귀시켰던 것이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현종(顯宗)때에 강릉지방에서 열병이 유행하여 朴貴男이란 사람이 병석에 누웠는데 그의 처 난개(難介)와 딸 옥지(玉只)·연화(蓮花)등이 나쁜마음을 먹고 朴貴男을 독에 넣어 뒷산에 묻은적이 있었다. 이일이 발각되어 강릉은 大都讓府에서 縣으로 강등되고 江原道라는 이름에서 강릉의 江자를 빼고 양양(襄陽)을 대신 넣어 襄자를 써서 江原道 대신 原襄道라고 불렀다. 또한 肅宗 때에는 原州에 남편을 죽인 부인이 있어서 原자로 뺀으로써 江襄道라고 했는데 이때는 숙종 9년(1682년)~28년(1701년)까지 무려 20년간 계속되었다. 또 영조(英祖)때에는 原州에서 반역을 도모한 사건이 있어서 春川의 이름을 따서 江春道라 불렀고, 原州는 牧에서 原城縣으로 낮추어 불렀다.

다시 正祖 때에는 강릉이 역적으로 몰린 이택징(李澤徵)의 고향이란 이유로 縣이 되었고 동시에 정조 6년(1785년)~

15년(1794년)까지 10년동안 原川道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강원도의 이름이 네번씩이나 바뀌기는 했지만 1895년 전국을 8도에서 23府로 나눌때까지 계속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전국을 23府로 나누면서 강원도란 이름은 없어지고, 강원도는 2개의 府로 즉, 영동은 강릉부, 영서는 春川부로 나누었고 府에는 책임자로 관찰부사(觀察府使)를 두었다.

이때에 原州·平昌·정선은 忠州府에 속하고, 지금의 卞州 楊根과 지평(砥平)을 春川府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전국을 23부로 나눈것은 1년밖에 가지못하고 전국을 다시 오늘날과 비슷한 13道로 1896년 行政區域을 변경 조정하였고 春川府와 江陵府를 합쳐 강원도로 다시 바꾸고 楊根과 砥平도 경기도로 되돌아 갔으며 강원도의 도청소재지도 과거의 원주에서 춘천으로 옮겨갔다.

각도의 兵馬는 兵馬節度使가 하나 혹은 둘씩 배치되어 군사를 통괄하고 있었고, 본 도내에는 한명이 배치되었으며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임진란 때에는 절도사 밑에 진관(鎭管)을 설치하였는데, 강원도에는 3곳에 진관을 두고 진관은 兪節制使가 통할하였다. 그 3곳은 原州·淮陽·江陵으로 강릉진관은 영동지방을, 회양진관은 북부지방을, 원주진관은 춘천·정선·영월·평창·인제·홍천과 횡성지방을 통할구역으로 하였고, 원주진관은 原州牧使가 兪節制使를 겸임했다.

다시 임진왜란 후에는 도내의 군사적 통할구역을 4개로 나누었다. 영동지방은 종전처럼 하나로 두고, 영서지방은 세개로 나누었는데, 북부와 중부, 남부로서 鐵原府使가 防禦營將을, 春川府使가 左營將을, 그리고 橫城縣監이 中營將을 맡았고, 영동지방은 江陵府使가 아닌 별도의 將軍을 우영장으로 임명 한때도 있었다.

#### 나. 橫城郡의 변화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넘어올때 횡성의 이름은 橫川으로 계속 불리어 왔으며, 횡천에 현을 두게된 것은 전국을 8도로 나누던 太宗 13년 즉 1413년의 일이다. 이것이 橫城이란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것은 太宗 14년인 1414년으로 그 이유는 이웃인 洪川과 발음이 비슷하여 혼돈을 가져오게 되어 고치라는 명에 의한 것이라 한다.

참고로 1959년 발행된 江原道誌와 1967년 횡성군교육청이 발행한 郡誌에 橫川縣을 太宗 2년에 설치했다고 기술된 것은 착오를 일으켰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횡성은 임진왜란 때를 제외하고는 평화롭고 조용한 고을이었으나 仁祖反正이 있는 후인 仁祖 5년인 1627년에 橫城의 屯內面에 살던 李仁居가 반란을 일으켜 뜻하지 않은 환란을 맞는다. 이때는 丁卯胡亂이 일어났던 해로 王室에서도 光海君을 내쫓고 仁祖反正을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는지라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李仁居는 불평 많은 농민들을 규합하여 수백명의 군중을 이루고 스스로

倡義 中興大將이라 칭하고 橫城縣 (오늘날 郡廳)을 습격한  
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江原 中營將을 겸하고 있던 橫城縣  
監은 상당한 무기를 현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이인거의 무  
리는 현아를 점령하고 현감 이도남(李權男)을 묶어놓고 무  
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한뒤에 서울로 진격하기 위하여 原州  
로 향하였다. 이때에 原州牧使 洪寶가 이끄는 宮軍과 지금의  
원성군 장양리에서 마주쳐 싸움을 벌이고 반군이 대패해 이  
인거는 政府軍에 의하여 사로잡혀 서울로 암송되며 난은 실  
패로 끝나고 반군도 해산된다.

이 사건으로 횡성이 처벌을 받게되니 縣이 철폐되고 仁祖  
14년인 1636년까지 10년간 原州牧에 합쳐지게 된다. 횡성  
이 다시 현으로 복귀되는 仁祖 14년은 丙子 亂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高宗 32년인 1895년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  
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지방관직제도를 살펴보면 縣의 크기에 따  
라 從 5品の 縣令이 다스리는 고을과 從 6品の 縣監이  
다스리는 고을이 있었는데, 횡성은 현감이 다스렸다. 흔히 쓰  
고 있는 守令方白이란 말은 地方長官이란 뜻으로, 守令은 郡守  
와 縣令을 뜻하고 方白은 관찰사를 뜻하는 것이니, 엄격히  
縣監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高宗 32년인 1895년 전국을 23부로 나누던 소위  
乙未年의 地方行政 개혁은 行政區域上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8도를 23부로 나누고 도 밑에 있던 종래의 牧·府·郡·縣을 전부 郡으로 통일하여 23부 밑에 336개의 郡을 두게 된다.

이때에야 비로서 횡성현도 오늘날과 같은 명칭인 橫城郡으로 되고, 原州牧의 관할이었던 古毛谷面과 地何谷面을 편입(이 두 면이 합하여 書院面이 되었음)되어 8個面이 되니 곧 橫城·隅川·井谷(지금의 安興面)·屯內·甲川·晴日·公根·書院面이다.

그러나 23부로 나눈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듬해인 高宗 33년, 즉 1896년에 다시 13도로 통합된다. 이때에는 횡성군내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일제치하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 5. 日帝時代의 橫城

일제시대의 횡성군은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하여 그들의 지배와 수탈, 그리고 민족정신의 말살에 알맞게 행정을 조직적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行政區域의 개편과 기구의 정비를 가져오게 된다.

1910년 9월 總督府 地方官制에 法的인 근거가 없던 面制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전국을 13道 12府 317郡 4,322面으로 정비하는데 이 당시의 횡성군은 8개 面이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의 통합정리로 군의 면적은 40方里, 인구는 1萬名으로, 면은 최소한 4方里에 가구 800

戶로 통폐합하여 13도·12부·220군·2,521面으로 줄어들지만 군내에는 변화가 없고, 1930년에 邑面制가 실시되지만 역시 변화가 없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도내에서 가장 앞장서고 가장 치열했던 항일운동과 3·1 독립운동에 관하여서는 국난 극복사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 6. 해방 이후의 橫城

도내 3·1운동의 성지로 일컫는 횡성은 해방을 맞으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수차에 걸쳐 약간씩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때부터 6·25 동란 전후와 현재까지의 전국의 행정구역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당시 ( 1945 년 )

○道 : 13    ○府 : 21    ○郡 : 218    ○面 : 2,243

△정부수립시 ( 1948 년 )

○市 : 1    ○道 : 9    ○府 : 14    ○郡 : 133    ○島 : 1  
○邑 : 7    ○面 : 1,456

△지방자치법 시행시 ( 1949 년 )

○特別市 : 1    ○道 : 9    ○市 : 19    ○郡 : 134    ○面 : 1,448

△6.25 동란 후 ( 1957 년 )

○特別市 : 1    ○道 : 9    ○市 : 26    ○郡 : 140    ○邑 : 80  
○面 : 1,412

△5.16 혁명 후 ( 1963 년 )

○特別市 : 1    ○直轄市 : 1    ○道 : 9    ○市 : 30    ○郡 : 139  
○邑 : 91    ○面 : 1,382

△최근의 행정구역 ( 1985 년 )

○特別市 : 1    ○直轄市 : 3    ○道 : 9    ○市 : 46    ○郡 : 139  
○區 : 42    ○邑 : 187    ○面 : 1,266

인 쇄 : 1990. 7. 20

발 행 : 1990. 7. 30

발행처 : 횡성문화원

편집처 : 횡성문화원 편집실

인쇄처 : 성 광 사

비매품

